

포스트 엑스포 ‘그랜드 플랜’이 없다

국토부 사후활용안 ‘해양 산업·R&D 육성’ 빠져... 단순 위락단지 우려

지역 정치권 등 계획안 확정 전 개선 나서야

이달 말 확정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안에 여수와 전남 동부권 일대를 해양 산업 및 연구개발(R&D) 메카로 육성하는 ‘그랜드 플랜’이 빠져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3면>
대전이 지난 1993년 엑스포 개최 이후, 정부의 과감한 지원 아래 과학·기술분야 R&D 메카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듯이 여수도 사후 활용 계획을 토대로 해양 산업 및 해양 R&D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토해양부의 ‘여수 엑스포 사후활용 계획안’에 따르면 여수 엑스포 사이트는 해양 레저, 복합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구역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 활용된다.

그러나 해양 산업 및 R&D 클러스터 기반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복합 콘텐츠 분야는 시설 일부만 전시관이나 홍보관 등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당초 여수엑스포 조직위가 제시했던 1, 2차 사후 활용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1차 계획안에는 조직위는 국내의 유수 해양연구기관을 유치, 해양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여수 프로젝트를 지휘할 국제 개도국 지원센터 설립, 해양 연구소와 첨단 R&D기업 100개 이상 유치, 국제 해양전문대학원 설치 등이 제시됐다.
또한, 2차 계획안에도 해양생태환

경보전 기술 개발과 신재생 분야 해양 에너지 관련 산업 유치 등 해양산업 및 R&D 클러스터 구축 전략이 제시됐다.
현재의 사후 활용 계획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여수는 해양 산업 및 R&D 메카로 발전하기 보다는 해양 관광 및 레저 중심의 위락단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계획 확정을 연기하더라도 해양 산업과 R&D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다음 정부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 등이 공동 체제를

구축, 국토부의 계획안 확정에 앞서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민자 유치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률적 근거 확보와 크루즈 카지노 허용 등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203,956명

여수박람회 공식 관람객

지난 12일 막을 내린 여수세계박람회의 관람객 수는 목표치(800만명)를 넘어선 820만여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박람회 조직위는 13일 “전시 기간 93일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인파

는 820만395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박람회장은 이날부터 한 국관과 디지털갤러리 등 일부 영구보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강남스타일’ 대박 이끈 광주 출신동

가수 싸이뮤직비디오 출연 황민우군 세계가 주목

유튜브 조회수 3000만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유튜브(kr.youtube.com) 조회 수만 3000만건에 달한다. 인기를 거듭하면서 싸이와 함께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이가 있다. 뮤직비디오 초반, 빨간 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절도있는 춤을 선보인 황민우(7)군이다.
올해 광주 광산구 어등초등학교에 입학한 황군은 이미 ‘광주의 춤신동’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 2009년 SBS ‘스타강’ 출연을 시작으로 TVN ‘코리아 갓 탤런트2’, KBS ‘전국노래자랑’ 등 TV는 물론 광주지역 축제의 단골 출연 손님이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춤 동작, TV 출연으로 다져진

‘끼’가 웬만한 성인 연예인을 압도한다는 평까지 나온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출연도 황군의 끼를 눈여겨 본 TV프로그램 작가가 싸이에 소개하면서 이뤄졌다. 싸이는 황군의 비디오를 보는 순간 ‘나랑 똑같잖아’라고 외쳤다고 황군의 부모는 전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뮤직비디오 제작이전, 황군에게 연락을 했고, 싸이 앞에서 즉석 춤을 춘 것이 세상에 나왔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 부티리(30)씨는 “민우가 태어난 지 24개월도 채 안돼 몸을 음악에 맞췄다. 울다가도 휴대폰으로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면 금세 울음을 멈추고 엉덩이를 들쭉거렸고, 3살 때는 TV에 마이클 잭슨이 나왔는데 어느새 그

춤을 따라하더라”며 ‘춤을 타고난 아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 황의창(52)씨는 “5살 무렵부터는 춤 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 연기를 따라하고, 코미디를 보면 흉내를 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황씨는 늦둥이 아들을 끝까지 밀어줄 계획이다. 지난 11일 서울서 열린 싸이 콘서트에도 부부가 황군과 함께 다녀왔다. 자칫 아들이 가진 재능이 물질까 덴스학원도 꾸준히 보낸다. ‘급 유명세’를 탄 황군에게 연예계 관계자들이 서로 ‘내가 키워주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는 후문마저 들린다.
황군은 “연기도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지만, 싸이 형처럼 큰(?)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임동욱기자 exian@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황민우(7)군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집에서 출연 당시의 옷차림을 한 채 싸이의 춤을 따라하고 있다. 아래는 뮤직비디오에 싸이와 함께 출연한 장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림



꿈을 펼쳐라 청소년 세상, 함께 만들자 신나는 학교

9월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일보보는 오는 9월 1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중·고교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끼와 재능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2012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청소년들의 밴드·댄스경연, 학교폭력예방 UCC공모전,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수기 UCC 공모전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지며 20's Choice의 인기 아이돌그룹 ‘걸스데이’와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 백창강, 각 대학 인기밴드그룹 등이 특별 공연합니다.
이번축제는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교실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전국 대학의 입학홍보관도 운영돼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선택에도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9월1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 장소: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 경연 모집부문:밴드(락/포크), 댄스(비보잉&팝핀/걸스힙합), 풍물,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교사참여가능),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수기 UCC 공모전, 3on3 길거리농구
- 참가자격·중·고교 재학생, 참가비 무료(입상팀·입상자 소정의 상장 및 장학금 수여)
- 참가문의:062)220-0555
- 주최:광주지방검찰청·전라남도교육청·광주일보사
- 후원:교육과학기술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www.hpdynastycc.co.kr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3.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4.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5.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스코스 20번을 임니다.

진초록 양잔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